

서울 마곡 중앙공원(가칭)

백지혜 <디자인스튜디오라인 대표소장>

서울 마곡 중앙공원 (가칭)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원에 조성되는 서울 최초의 식물원을 포함하는 공원으로 약 50만m²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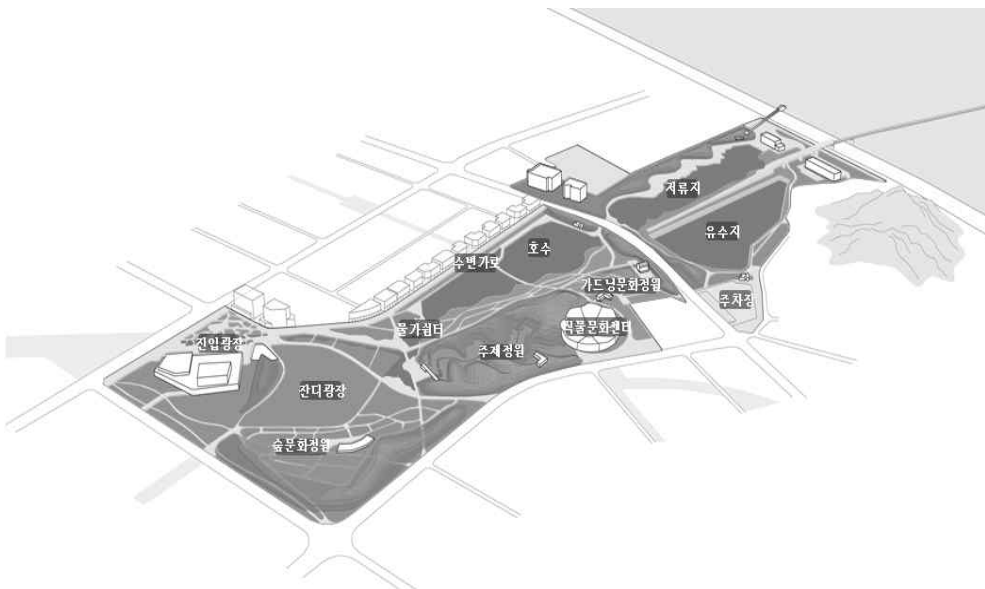
공원은 9호선 마포나루역에 인접한 진입광장을 시작으로 크게 열린숲공원과 호수공원, 식물원 그리고 생태습지원으로 구성되며 자동차전용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한강 나들목까지를 포함한다.

주변을 구성하는 경관은 매우 다양하여 고층 밀집 주거지역이 면한 부분은 침입광을 지양하되 주민이 공원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고 서남물재생센터와 같은 인프라시설은 야간에 시설물

자체의 조명이 없어 인근지역이 어두워져 우범지역이 될 것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한 조도 확보와 더불어 수목에 의한 그림자로 어두운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였다. 또한, 주위에 근대문화재와 궁산이 위치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소극적인 빛계획을 하되 역시 주민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밝기는 필요한 환경이었다.

마곡중앙공원 조명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 1. 365일 주민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원이며
- 2. 거대도시 서울의 심장이 될 최대 규모의 자연녹



지 공원이라는 점

3.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김포공항이 가까워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외국인들에게는 또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명계획의 개념은 '아름다운 어둠 lyrical darkness'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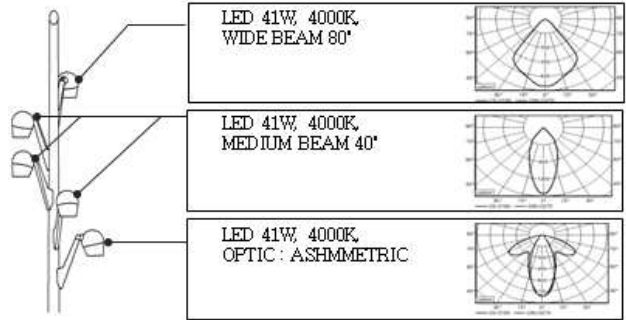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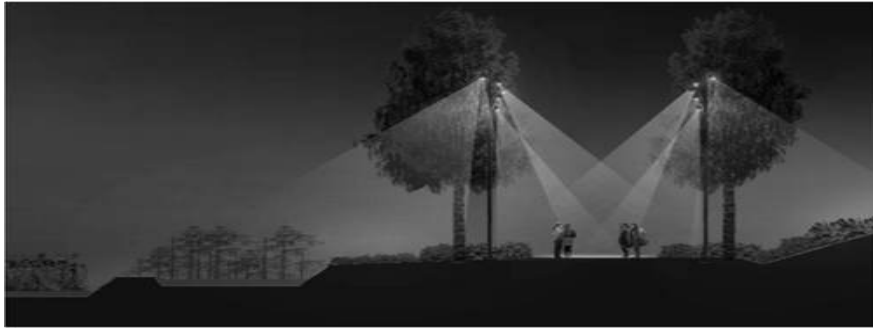
서울은 야간조명이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빛공해의 규제를 하고 있는 터라 서울의 심장 역할을 하게되는 마곡공원은 자연환경이 주는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두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다만 그 도시 내에 형성된 상대적인 어두움이 잘 계획된 조경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어둠으로 보여지

도록 조명계획을 하고자 하였다.

조명계획은 세개의 조명시스템으로 나누어 공원 방문자 그리고 관리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수평의 빛(켜1)과 공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빛(켜2)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공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빛(켜3)으로 계획하여 이러한 분리된 켜는 시간대별 연출계획, 에너지 절감계획, 예산관리등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마곡중앙공원의 조명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물가가로수길과 저류지의 산책로이다. 이 두 길은 이어져 한강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도로이면서 거대한 축을 형성하게 된





다. 물가가로수길은 좌우로 유수지와 식물원을 포함하는 주제정원이 위치하여 주변이 어두운 특징을 갖는 반면 6m 폭으로 양옆에 약30m까지 곧게 자라는 왕버들나무가 계획되어 있어 이들을 강조하고 동시에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개의 등기구 헤드룰 설치할 수 있는 조명기구 타입을 선정하였고 높이를 기존 보안등의 높이가 아닌 9m로 적용하여 적은 수량의 등이 노면과 수목을 비추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스피커나 cctv도 같은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어 최대한 수목을 즐길 수 있는 주간 경관까지 고려하였다.

저류지 산책로는 2m~4m 폭의 구분구불한 산책로로 습지생태구역이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 빛환경이 거의 없는 길이어서 안전을 위한 밝기를 공급하고 정교한 조사각을 갖는 보안등 개념의 가로등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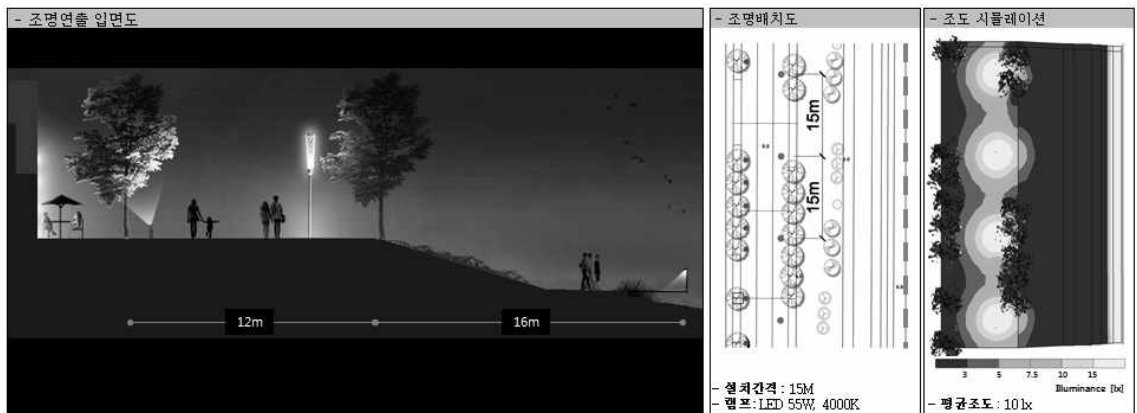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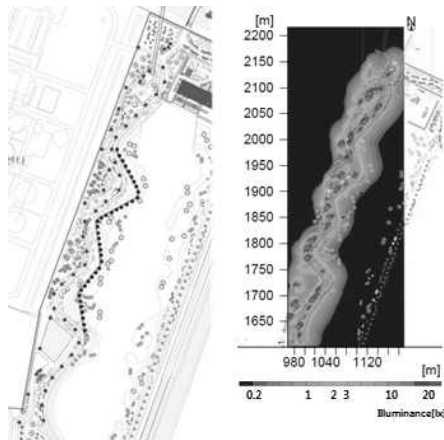
또한 저류지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전망데크에는 낮은 볼라드를 계획하여 저류지와와의 경계를 인지하게하면서 생태습지에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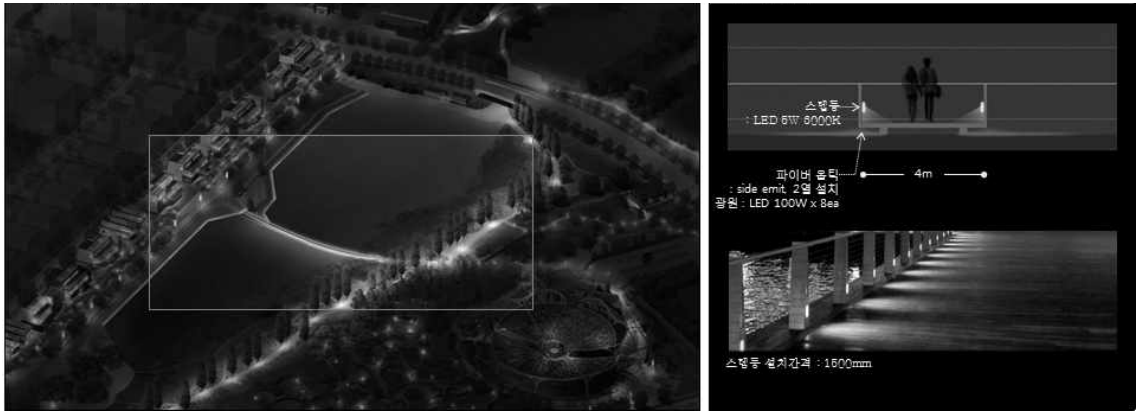
수변가로는 물가가로수길과 나란히 계획된 도로로서 주변에 상가가 접해있어 상가로부터의 빛과 조화를 이루며 상가에서 유수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조명계획에 있어 이 길은 그저 걷는 행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이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질의 빛을 계획하고 산책길과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중간에도 아름다운 오브제와 같은 장식적인 가로등과 수목을 비추는 볼라드에 의해 festival적인 느낌의 도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유수지쪽에 형성된 공간은 어둠으로 남겨두고 유수지의

경계부분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하였다.
 거대한 수공간은 주간에는 하늘도 담고 주변의 경
 관들을 담아 매우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야간

에는 모든 것을 삼키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두렵게
 까지 한다.
 호수횡단 보행교를 위한 조명은 이러한 것들을 해





소하기 위해 계획되어졌는데 보행을 위한 바닥면조명은 개방되어 있는 수면에 빛의 파편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다리 하부에 설치된 조명은 수면에 다리를 투영하고 단순하게 정리된 선형의 칼러연출 빛은 진입광장이나 숲문화정원에서는 방문객에게 시각적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원 전체의 조도와 색온도는 서울시 기준에 준하여 계획하였고 인접하는 구간에서는 마곡지구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조도계획에 있어서 각각의 길이나 공간의 형태, 계

획된 수중, 예상되는 방문객의 행동에 따라 차별을 두어 계획하였는데 빛을 제공하는 광원(조명기구)의 높이 역시 다양하게 계획하여 공간별 다른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예를 들어 흐름이 빠르고 넓은 도로는 높은 곳에서 수평면을 향한 밝은 빛을 계획하고, 좁고 낮은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은 낮은 곳에서 초화류를 향한 빛을 두어 수직면의 밝기를 높이도록 하였다.

야간경관계획에 대하여 조경전문가들은 식물을 위한 공원이데 조명을 왜 두는가라고 이야기 하였다. 필

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도시의 공원은 식물에게는 미안하지만 사람을 위한 공원이라고 생각한다. 식물을 위해서 최소한의 빛을 계획하였을 때 사람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게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과한 빛은 당연히 지양해야한다. 하지만 늦은 밤에도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명은 필요한 밝기를 내어야 한다.

◇ 저 자 소 개 ◇



백지혜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졸업. Parsons School of Design, New York 건축조명디자인 전공 졸업(석사). 1988년 2월~1993년 12월 (주)현대백화점.

1994년 1월~1999년 6월 삼우 건축사 사무소. 2005년 6월~현재 디자인스튜디오라인 대표 소장. 2003년 3월~2007년 12월 숭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2008년 3월~2009년 12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강의교수. 2003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외래교수.

주요프로젝트 : 국회의사당 중앙광장 경관조명 설계. 신세계 하남 유니온스퀘어 경관 및 실내 조명설계. 잠실 롯데월드쇼핑몰 실내조명 설계. 서울 마곡 중앙공원 경관조명 설계. 송도6,8공구 Detailed Cityscape Plan (야간경관). 서울 마곡지구 Detailed Cityscape Plan(야간경관). 광양제철소 경관조명 기본설계. 상하이 엑스포 기업관 경관조명설계. 남양주 별내지구 야간 경관 Master Planning. 경주문화회관 경관조명설계. 신세계 부산 센텀 Urban Entertainment Center 경관조명설계.

기타 활동 : 서울시 좋은 빛 위원회 심의위원. 성남시 디자인위원회 위원. 부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IESNA(북미조명디자이너협회) 정회원.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이사. 한국조명설계협회 부회장.